



자동차 Analyst 신윤철 yoonchul.shin@kiwoom.com

## 5월 8일자 미국-영국 자동차 수입 쿼터 합의 정리

영국산 자동차에 연간 10만 대까지 상호관세 10% 적용, 초과분에는 기존 25% 자동차 품목관세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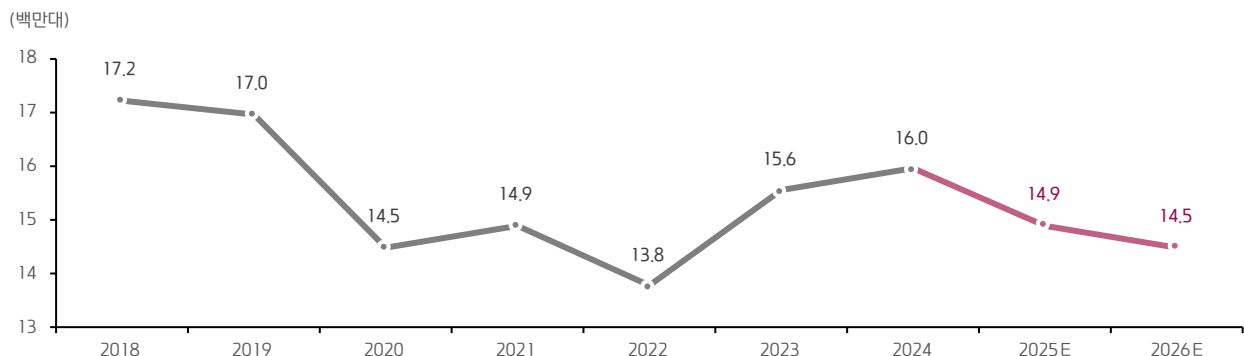
### ①영국산 자동차 수입 쿼터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백악관이 산정했던 영국의 '상호관세율'

- 자동차 품목관세가 25% → 10% 하향조정된 사례가 아님.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이는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 연간 10만 대까지는 품목관세(sectoral tariffs)가 아닌 상호관세(reciprocal tariffs)로 대체 적용하는 개념의 조치. 지난 4월 초에 백악관이 발표했던 영국 상호관세율이 10%였다는 점에 주목
- 즉 한국, 일본, EU 등 현재 백악관과 자동차 품목관세 관련 협의를 희망하는 국가들은 결국 기존에 백악관이 산정했던 상호관세율(한국 25%, 일본 24%, EU 20%)을 낮추는 노력이 수반돼야 할 가능성 있음. 5월 8일자 미-영 자동차 수입 쿼터 합의 사례만으로는 여전히 자동차 품목관세율 자체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
- 이번 합의로 인해 수혜 예상되는 업체들은 Lotus, Rolls-Royce, Bentley, McLaren, Jaguar Land Rover, Mini, Aston Martin이며 주로 럭셔리 시장에 포진해있기에 10% 수준의 관세는 상당 부분 고객 전가 용이할 전망
- 5월 8일 일간 주가 수익률 - LOT.US(ADR): +8.3%, AML.LN: +13.9%

### ②미국 입장에서 연간 10만 대는 위협적이지 않았을 것

- 2024년 기준 영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 물량은 연간 10.1만 대. 따라서 수출 물량 대부분 10% 관세율 적용 전망
- 다만 자동차 품목관세 부과로 인한 산업수요 위축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예측하더라도 미국의 신차 시장은 연간 1,400~1,500만 대 규모이므로 연간 10만 대에 대한 합의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
- 반면 2024년 기준 한국산 자동차, 일본산 자동차, EU산 자동차의 미국향 수출 물량은 각각 154만 대, 137만 대, 75만 대. 따라서 합산 연간 350만 대 이상 물량에 대한 자동차 수입 쿼터 합의에는 난관이 예상되며 추후 합의가 진전되더라도 영국 사례와는 달리 수출 물량 대부분이 커버되지는 못할 가능성 염두에 둘 필요

미국 신차 산업수요 추이 및 전망: 현행 자동차 품목관세 지속될 시 카플레이션 발생으로 산업수요 위축될 전망



자료: Marklines, 키움증권 리서치

## 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05월 08일 현재 상기 언급된 종목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## 고지사항
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
-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